

Mary Augusta Brazelton, *Mass Vaccination: Citizen's Bodies and State Power in Modern Chin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19. 258 pp.

신미영†

메리 오거스타 브래즐턴의 *Mass Vaccination: Citizen's Bodies and State Power in Modern China*는 코로나19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접종이 장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대규모 예방접종이라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자리 잡아가는 맥락을 20세기 중국 안팎의 정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살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일전쟁 당시 중국 남서부 지역 국경지대에서의 연구개발로부터 예방접종 정책이 시작되었고, 중국이 이 정책을 대내외에 선전하면서 의료를 통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백신이 개인과 집단, 국가와 시민, 전문가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묶는 통치의 의학 기술임을 중국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면서 대규모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중국의 공중보건뿐 아니라 세계 보건의료사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나타냈다.

이 책은 중일전쟁 발발부터 WHO의 천연두 박멸이 선언되는 무렵까지의 시기를 7개의 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전쟁 기간 동안 중국 남서부의 국경지대를 서양의학과 공중보건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무질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으로 서술해 온 것과 달리 저자는 중국의 대규모 예방접종 정책 발전의 시작점으로 부각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했다. 또한 이 연구는 저자가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서신, 보고서, 영사관 문서 등을 여러 기록보관소에서 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중국의 현대 보건의료사를 초국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장에서는 중국의 미생물학 연구자들이 남서부

---

†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shinmyo124@bnu.ac.kr

지역으로 옮기면서 알게 된 이곳의 보건 환경이 설명된다. 전쟁 이전 중국의 미생물학 연구는 외국 유학 경험자들도 많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공중보건과는 그리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많은 미생물학 연구자들이 중국 남서부의 쿤밍(昆明, 윈난성의 성도)으로 이동했다. 이들이 쿤밍을 선택한 것은 이 지역이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을 만큼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인접 국가 및 지역과 교통, 통신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중국 바깥 세계와의 연결고리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쿤밍은 연구자들이 경험했던 엘리트적 환경과는 아주 다른 열악한 곳이기도 했다. 이곳의 연구, 의료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매우 형편없었고, 각자가 가지고 온 각종 도구나 장비들도 이동 과정에서 잃거나 많은 점에서 미흡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지에서 모인 여러 분야의 학생, 의사, 간호사 등이 쿤밍을 중심으로 학문적으로 새롭게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중국 남서부 지역은 위생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이었다. 특히 전시 유입된 이들을 중심으로 열대 질병, 풍토병들이 대거 유행했고, 많은 학생들이 이주한 지 2년 이내에 각종 전염병으로 고생했다. 윈난성으로의 이주와 이곳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을 직접 경험, 확인한 연구자들은 농촌의 건강, 위생 상태를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농촌 인구는 서구 사회의 건강 관리 방식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크게 부족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만성 질환과 전염병들이 증폭되었다. 특히 사람의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함에 따라 기생충,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전염병의 확산이 촉진되었다. 이러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지역민들은 보통 종교적 치유나 전통적 약물에 의존하고 있었다. 쿤밍으로 이주한 연구자들은 질병과 건강에 대해 매우 다른 태도를 가진 이 지역의 환자들과 다른 의료 이주민들, 지역 의료전문가들과의 새로운 상호작용에 직면했다. 이들은 “대규모 예방접종”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쿤밍으로 이주한 연구자들이 과거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서구 공중보건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윈난(雲南, Yunnan)은 지형이 험하고 열대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통치하기에 부적합한 곳이었다. 당시 관리들이 이곳으로 파견되면 유배라고 여길 정도로 여러 면에서 낙후해 있었다. 19세기 말 유럽인들이 중국의 상업, 무역 가치를 인식하고 이곳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영국과 프랑

스가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 특히 프랑스는 1884-85년 청프전쟁 이후 북부 베트남을 지배했는데, 중국 중부로 가는 무역로를 얻기 위해 윈난에 들어왔다. 프랑스인들은 이곳에 새로운 의료 인프라의 기초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 이들은 천연두 예방접종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접근해 갔는데, 실제로 이곳에서 활동한 오르톨란이라는 의사의 보고에 의하면 프랑스의 의사들은 “이 나라에 평화적으로 침투할 방법을 찾고 있었”고, 이를 위해 “토착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고자 했다(38). 한편 프랑스 외에 영국도 윈난성에 진출하여 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영국의 의사들은 지역 주민들이 오랜 전통적 관습에 기반하여 특정 시점에만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국 의사들은 주민들이 지켜온 오랜 관행을 수용하고, 이들의 관습에 맞추어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해 갔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이 윈난에서 세력을 확장해 가던 시점에 윈난성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여 통치자가 바뀌었다. 새롭게 등장한 총독 탕지야오(唐继尧, Tang Jiyao)는 그간의 군벌세력들과 달리 군대 건설보다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윈난에 공중보건 기구를 만들고 예방접종을 수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역민들 사이에서 백신을 맞으면 몸이 약해져서 병에 더 잘 걸린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에 따른 반대가 컸다. 이러한 저항에 직면했을 때 프랑스 의료진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윈난성의 공중보건 노력을 보완해 주었다. 일례로 1922년 1월 쿤밍에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이때 프랑스 영사관 의료진으로 합류한 무아락(Dr. Georges Mouillac)이 이 질병을 성홍열로 보고, 이에 맞추어 대응했다. 이후 전염병의 기세가 가라앉았고, 총독 탕지야오는 그의 활약을 크게 치하했다. 이로써 프랑스 의학은 윈난 정부의 공식 승인을 얻게 되었고, 지역민들도 예방접종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예방접종 활동은 프랑스와 영국이 윈난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천연두 예방접종을 비롯한 서양 의료 인프라가 중국 내에 수용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3장은 중일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쿤밍 외에 다른 지역에도 새로운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충칭(重庆, Chóngqìng), 구이양(贵阳, Guìyáng), 란저우(兰州, Lánzhōu) 등의 도시에서 국제기구의 원조와 서양의 과학 연구자들과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내 백신 개발과 접종은 물론, 중국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범위도 확대되었다. 전시 수도가 된 충칭에서는

위생서(衛生署, National Health Administration)가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외국 단체에 원조를 요청했다. 이에 미국의약조화회(The American Bureau for Medical Aid to China, ABMAC)와 중영과학합작관(The Sino-British Science Cooperation Office, SBSCO) 등이 긴밀히 협력했다. 미국의약조화회는 예방접종을 위한 공중보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고, 중영과학합작관은 중국의 과학 연구자들에게 출판물, 연구장비 등을 제공하고, 이들의 성과를 외국의 주요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중영과학합작관의 활동은 중국 연구자들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전문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전시 중국의 상황과 연구를 영미 과학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구이양은 군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의학 교육과 백신 개발을 통해 지역의 중요한 의료 센터로 발돋움했다. 란저우는 중국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의료 훈련과 주요 백신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위치적으로 일본 점령 지역과 인접한 곳에 있다 보니 일본으로부터 포획한 조랑말이나, 한천 밀반입 등을 통해 이를 세균 배양에 사용하기도 했다. 전쟁 기간 동안 공습, 경제 인플레이션, 환경 문제 등 여러 제약 속에서도 중국 의료 연구자와 공중보건 관리자들은 계속 소통하며 백신 연구와 개발에 힘썼다. 또한 국제연맹이나 의료 단체, 연구자들이 중국 남서부에 오면서 중국의 미생물 학자들이 외국의 연구자들과 더 광범위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국제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의학적 활동의 폭을 확장해 갔다.

4장에서는 쿤밍을 중심으로 대규모 예방접종 체계가 마련되는 맥락을 다루고 있다. 전쟁을 겪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전염병으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자 쿤밍으로 옮겨 온 의료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공중보건 계획을 제시했다. 바로 대규모 예방접종이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산이 많고, 아열대 숲과 강이 있는 윈난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무리였을 뿐 아니라 실제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의 입장에서 백신 접종은 위생의 목적 뿐 아니라 생물전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것이었다. 특히 1942년 콜레라 유행은 중앙방역처의 전례 없는 대응을 발생시켰다. 시골 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쳤지만 백신 접종을 위해 설득과 강압의 방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여행자 대상으로는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접종을 최대한 유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접종률은 상당히 낮았고, 효과도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때의 예방접종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백신 접종의 실천 과정에서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연구자들에게는 지역적 환경을 고려한 백신 연구를 시도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백신을 보급해야 했던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백신은 효능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연구자들은 쥐나 기니피그 대신 누에 번데기를 이용하거나, 한천을 재사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했다. 이렇듯 대규모 예방접종 실시는 기본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대응의 방법이었지만, 연구자들의 연구역량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전쟁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는 공중보건 프로그램의 밑거름이 되었다.

5장에서는 1945-49년의 기간 동안 중국의 내전과 대규모 예방접종의 확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면서 전쟁 기간 동안 내륙지역으로 옮겨 왔던 연구자들은 본래 위치로 복귀하고, 기존 시설들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 중국 동부 지역에 생물 연구와 백신 생산을 위한 공간이 재건되었고, 탕페이판(汤非凡, Tang Feifan), 웨이시(魏曦, Wei Xi), 셰샤오원(谢少文, Xie Shaowen) 등 면역학자들이 중국 공중보건에 중요한 기여자로 올라섰다. 하지만 중일전쟁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내전이 벌어지면서 중국 내 무력 충돌이 이어졌다. 내전 기간 동안 결핵이 유행했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많은 연구자들이 BCG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백신 접종이 공중보건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결핵으로 노동력마저 약화된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BCG의 접종이 중국 노동력의 소모적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임을 강조하며 적극 홍보에 나선 것이다. 비록 BCG 대규모 예방접종이 바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문가들 중심으로 공중보건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후 등장한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데 활용되었다.

6장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면서 나타난 변화들을 다루고 있다. 이른바 국공내전이 마무리되고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오랜 분쟁이 종식되었지만 위기는 여전히 존재했다. 그중 한국전쟁의 발발과 주요 지역에서의 전염병 발생은 새로운 정권에 도전으로 다가왔다. 중국공산당은 대규모 예방접종을 보건정책의 중요한 업무로 보고 이를 통해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은 물론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특히 중국의 미생물학자들은 한국전쟁에

서 미국이 세균 무기를 사용했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실험 내용을 전문적으로 드러내 보이며 미생물학을 정치적 담론의 일부로 만들었다. 이는 중국의 미생물학자들에게 자신들의 지적 권위를 쌓을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나아가 중국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설득하기 위해 그것의 의학적 가치보다 애국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나타난 반미 감정을 예방접종 정책과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적극 활용한 것이다. 1950년대 초반이 되면, 예방접종 실시로 사망률이 크게 감소되었다. 여기에는 전쟁 기간 동안 마련된 보건으로 인프라를 국가 체계로 대거 통합시켰고, 각 지역의 예방접종팀에서 개인의 예방접종 상태를 여러 항목으로 기록,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접종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또한 보건 당국은 예방접종 유도를 위해 포스터, 라디오 방송, 노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국민당 정부와 대비되는 모습을 강조했다. 1950년대 초 백신 홍보의 수사학은 중국공산당이 예방접종을 정치적 행위로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봉사를 인정하고 받는 것이며, 시민으로서 정부와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나아가 정부가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에 대해 교육하고, 그것의 두려움을 해소하여 국민당 정권보다 공산당을 선호하도록 만들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7장은 중국이 대규모 예방접종 정책과 농촌에서의 보건으로 활동을 국제 사회에 선전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문화대혁명을 통해 낡은 문화와 관습, 사상 등을 타파하여 자기 희생적인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고자 했으나 대혼란을 겪으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 혁명의 시대는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농촌에 의료를 제공하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 시기 농촌의 프롤레타리아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맨발의 의사(Barefoot Doctor)가 농촌의 건강 관리를 위한 중요한 활동을 담당했다. 반전문적 의료 노동자인 그들은 농촌 곳곳에 보내져 예방접종과 기본적인 임상 진료를 실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들에 의해 농촌의 많은 전염병이 통제될 수 있었고, 그 발병률도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료 외교에 적극 나섰다. 맨발의 의사 제도와 대규모 예방접종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국의 건강 관리 모델을 세계에 홍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간 정치,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다. 1979년 세계보건총회의 알

마아타 선언에서 일차의료의 강조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농촌 보건의료 활동으로부터 그 가능성을 보았던 것과 연관이 깊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료 외교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얻었다. 즉 중국의 정치적 권위 확장의 기반에 공중보건, 구체적으로 농촌 보건 활동을 통한 대규모 예방접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대규모 예방접종이라는 보건의료 체계가 현대 중국의 건설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을 지나면서 예방접종을 지지했던 연구자와 행정가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이를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국가는 주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개입할 수 있는 생명권력을 확립하게 되었다. 나아가 대규모 예방접종은 농촌에서의 보건 활동과 함께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신뢰를 획득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대규모 예방접종은 과학적 의학의 모습으로 이해되기 쉽다. 이 책이 20세기 초 중국의 의료적 상황이 매우 미흡했던 것에서 출발하고는 있으나 이것의 진전 과정에 과학적 역할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미생물학자들이 외국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성과를 서구 사회에 소개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연구 활동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비추어지고 있다. 동시대 세균학, 면역학 연구의 진전 속에서 중국의 미생물학자들이 어떤 연구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었는지, 이들의 연구 역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접근이 있었다면 과학사적으로 흥미롭게 볼 수 있었을 듯 하다. 또한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중국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던 전통의학과 조우하는 장면도 서양 의사들의 노력, 즉 지역민들의 오랜 관습을 수용하며 실천되었다는 정도로 서술되고 있다. 예방접종의 도입 초기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규모 실시 과정에서 과거의 의료적 태도와 현대적인 형태의 보건의료 체계가 만나는 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더라면 과학기술의 수용의 측면에서 많은 논의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놓인 가운데 예방백신의 등장을 간절히 바라던 때가 있었다.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백신이 개발되었고, 접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백신이 등장했다고 해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대규모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백신에 대한 불신, 개인 선택의 자유, 백신 확보나 보급에 필요한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방접종은 고르게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세기 중국의 예방접종 정책 실

천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제시해 준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여건이 미흡한 상태에 있었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당시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예방접종은 의료 활동이자 애국적인 행위로 인식되면서 대규모로 실천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을 볼 때 대규모 예방접종의 실천은 과학적, 의학적 이해를 넘는 또 다른 목적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대규모 예방접종은 의학이 아닌 의료의 영역으로서 실질적인 수행에 필요한 정치적, 사회문화적 제반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활동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에 출판되었지만 이 책은 중국의 대규모 예방접종 정책을 정치 사회적 시각에서 조명함으로써 현재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의료적 실천의 복합적인 모습들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